

2013 여름 이야기 vol.170
www.holt.or.kr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름 이야기

나뭇잎도, 길거리 구르는 돌도, 집 안의 모든 사물도 그림 도구로 보일 만큼 그림 그리 는 것이 너무 좋아 밤을 새는 것도 잊는다는 홀트일산복지타운 이은경 양(19, 지적장애 2 급)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지 속에 첫 개인 전시회에 이어 두 번째 전시회도 준비 중이다.(p24 계속)

사진 | 이정탁 사진작가 후원·Studio H2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70호·계간 발행일 | 2013년 06월 11일 발행인 | 말리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
위원 | 홍미경(홍보팀장), 신마숙(후원팀장), 성경희(아동양육팀장), 이수연(국내입양팀장),
김재현(하남시복지관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김은희(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
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3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
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
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p>이사회 말리홀트 이사장 유창기 이사(기독교신문사 사장) 이혜경 이사(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임부용 이사(HICS 수석고문)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회장)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p> <p>본부 T.02)331-7000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1588-7501</p> <p>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p>	<p>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p> <p>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동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200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4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p>	<p>전주영아원 T.063)222-1559 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p> <p>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돌·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사랑돌 www.holllove.or.kr T.053)756-0183 아름돌 www.holtarum.or.kr T.02)334-4614 아침돌·아침들학교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T.02)322-3325 대전클로버 T.042)583-4006</p> <p>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 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p>
--	--	--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전문기관이며 전국 10개 사무소를 통해 국내입양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의 복지 증진만을 생각 하며 ...



사회복지는 시대마다 욕구가 많은 방향으로 다양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1955년 10월 설립될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쟁 통에 부모 형제를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혼혈고아 및 전쟁고아들에게 가정을 찾아 주는 일이 절실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고아입양특례법을 만들어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아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서 1988년부터 고아가 국외입양 갈 수 없도록 정책이 변화되었고, 현재는 단 한 명의 고아도 입양기관을 통해 국외입양된 경우가 없습니다. 국적 취득도 1983년 이후 출생자는 입양된 후 국적 취득을 못 받는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지금도 마치 고아가 해외로 입양이 되고 국적 취득을 못해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도해 일반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 비치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으로 범인허가제가 도입되었고, 금년 5월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됨과 동시에 아이들도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내입양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으로 국가 간의 국제입양이 공식인증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양의 정책변화와 입양대상 아동의 축소로 입양업무를 담당했던 울산과 부천사무소를 우선 폐쇄했고 앞으로도 지방사무소를 다른 복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국내에서 가정을 찾아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올해부터 미혼모자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식개선캠페인과 양육비지원, '365 Baby Care Kits'를 통한 물품지원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탄할 수도 있고 굴곡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진 삶의 여정이며 입양도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친부모가 아기를 양육하기 어려울 때는 아이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을 찾아 주는 것이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공감하고 입양에 대해 우리 모두가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친부모와 입양되어 성장하는 많은 입양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고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아동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김대열 드림

5월 '가정의 달' 안에는 새로운 가정을 싹 틔우는 '입양의 날'이 5월 11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양' 듣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퍼지고 봄 햇살이 가슴에 들어온 듯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 누려본 사람만이 아는 행복이라 자랑하는 이들, 바로 입양으로 자녀를 품은 부모와 가족들입니다. 2013 입양가족포토에세이공모전 수상자 가족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행복”

대상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결혼 후 12년 간의 기다림 속에서 만난 두 자녀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초등학교인 11세 딸, 8세 아들과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이규현(경기도) | 결혼하면 저절로 부모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늦어지나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초조해졌고 점점 불안과 절망으로 달음박질했습니다. 12년의 기다림 속에서 맛보았던 절망과 안타까움의 눈물은 고드름처럼 싸늘하게 우리 부부의 마음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만나던 날, 우리 마음속의 고드름이 녹아 기쁨의 빗물이 되었고 오랜 세월 쌓인 우리 가슴의 응어리들을 깨끗이 씻겨 주었습니다. 기쁨! 우리 딸을 만난 감정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 주희라는 이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꽃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춤을 추는 그 기쁨을 우리 딸

을 통해 누리게 되었지요. 아들을 만날 때에는 우리 부부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적신 빗물 정도가 아니라 그 기쁨의 빗물이 강이 되어 온 세상을 적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강! 우리 아들의 이름 혜강이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 때에는 두 발 자전거처럼 계속해서 달려야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추면 그냥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딸을 만나고 난 후는 세발자전거처럼 멈추어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난 이후는 자동차처럼 쉼 없이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강에서 주님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수상



셋이나 해나이고, 해나이나 셋인 것은?

“외로워 보였던 아들에게 동생이 생겼습니다.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른 세 아들을 보면 든든합니다.”

장희용(부산시) | 저희 가정에는 아들이 셋 있습니다. 잠버릇, 식성, 좋아하는 노래, 취미가 같은 세 아들은 하나인 듯하나, 날아주신 엄마도 아빠도 다르고, 생김새나 모발, 체질도 달라 셋인 듯합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를 보며 동생이 있어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과 같은 입양아인 셋째를 보며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 셋이나 하나이고 하나이나 셋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 날마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제 이 셋을 빛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상



풍선껍데기에 빵 러진 아이들

“결혼 6년 만에 2007년 딸, 2009년 아들, 2012년 딸을 입양해 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채안(경상남도) | 결혼 6년 만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하숨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하기 전에는 두려웠지만 시작해보니 “이 좋은 걸 왜 빨리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숨이에게도 동생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욕심에 주위 분들의 반대와 남편의 걱정을 뒤로하고 둘째 입양을 감행했는데 저보다 남편이 더 좋았는지 매일 목욕까지 해주고 출근을 했지요.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하숨이가 다섯 살이 되면서 여동생 타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두도 못 낼 일이라 들은 척도 안 했지만, 어느새 저희 부부는 “진짜 셋째를 키워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남편이 셋째를 입양하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에게 너무 좋다는 거였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의 사랑에 흠뻑 빠진 저희 부부는 반대하실 것이 뻔한 양가에는 비밀로 하면서 셋째 유라까지 입양했습니다. 이제서야 꼭 찬 느낌, 저희 가족은 원래 이렇게 다섯 가족이었어야만 했던 거 같습

니다. 주위 분들은 저희보고 “남들은 자기 자식도 키우기 힘들다고 하나밖에 안 낳는데 참 대단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안 해보면 몰라유~~”라고 말하고 싶네요.

우수상



스마일 남매 "2012년 8월 태어난 지 10일 된 라운이를 입양해 오빠에게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생겼습니다."

김경선(서울시) | 100밤, 99밤, 98밤... 그렇게 거꾸로 센 지 100일. "엄마 한 밤 남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동생이 오지요?" 입양신청 서류를 넣고 기다린 지 3개월. 매일 밤마다 "오늘은 몇 밤 남았어요?" 하면서 동생을 기다리는 오빠. 들

뜬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 아이한테 내일도 동생은 못 온다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미안했는지요. 그렇게 100밤을 더 세고 드디어 예쁜 동생이 왔습니다. 남매는 "라운아 어서와, 많이 기다렸어" "오빠 늦게 와서 미안해, 나도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듯 신기하게 서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힘들게 태어난 우리 라운이는 머리 한쪽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그로 인해 신생아 황달도 심했고, 다리쪽에 큰 점도 두 개나 있었답니다. 홀트 상담선생님께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의 상태를 말씀해주셨지만 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니다. 꽤 오래 갈 거라던 부종과 황달은 집에 온 지 3일여 만에 싹 사라졌고 다리쪽의 큰 점은 라운이 허벅지 두께만큼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이 점이 라운이를 우리 가족과 연결해준 복점이니 빼주지 말자"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외모에 신경 쓰는 나이가 되면 빼달라고 조르겠지만요. 같은 옷을 입고 누워 있는 두 남매, 보기만 해도 힘이 솟는 나의 엔도르핀들! 우리 요한이랑 똑같이 생긴 아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수상



줄줄이 사랑 "규똥이는 2010년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신나게 놀아주는 오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김한수(경기도) | 친가족처럼 지내는 네 가정! 작년 여름 청운골생태마을로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니 아이들이 잠옷 바람으로 청운골 여기저기를 막 다니다가, 가장 힘센(?) 막내 삼촌이 나타나자 아이들이 서로 매달리려고 난리입니다. 친형제 자매처럼 서로를 끌어올려주고, 잡아주었던 이 순간이 아이들 인생에 평생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특히 규똥이가 '나는 누구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올 때 사진 속의 언니 오빠 동생이 규똥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규똥이는 이 세상에 홀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사진 속 규똥이는 삼촌과 언니 손을 잡고 높이 올라가 있네요).

• 수상작 •

- 대상 | 이규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우수상 | 장희용 (셋이나 하나이고 하나이나 셋인 것은), 우채안 (풍선껌에 빵 터진 아이들), 김경선 (스마일 남매), 김한수 (줄줄이 사랑)
- 입상 | 조해진 (환희), 진길순 (하회탈 남매), 이동현 (양머리 자매), 조윤정 (아빠와 아들), 김경례 (봉쥬르~ 마이)

행복으로 꼭찬 시상식

홀트아동복지회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행복' 입양가족포토에세이공모전은 입양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하고자 7회째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92점이 응모했으며, 대상 1점을 포함, 모두 1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월 23일 열린 시상식에 송재호, 윤택 홍보대사가 참석하여 수상과 더불어 축하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김대열 회장은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사진들을 보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족의 일상생활 속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공개입양가족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점차 입양을 받아들이는 좋은 변화의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6년째 심사를 맡아 주신 조세현 사진가는 "매년 기대되고 많은 걸 배우는 사진전이며,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 사랑, 그리고 깊은 모성애, 그 모든 걸 느꼈습니다. 심사할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너무 행복하고 또 행복했습니다"라고 심사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입양가족의 아름다운 행복과 사랑을 맞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행복' 공모전에 함께해 주신 모든 응모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울지마 하늘아~ 꼭 나올거야 그렇게 믿어줘...

몹시 추웠던 2013년 1월 하늘이가 태어났다. 출생 시 한쪽입술갈림증을 동반한 입천장 갈림증, 요도하열, 곤봉발, 동백관개방, 지속성 제2공결손증이라는 복합장애에 둘러싸여 한 달 넘게 장기 입원했던 하늘이. 이제 150일도 안 된 아기의 눈이 슬퍼 보이는 건 내 마음일까, 하늘이 마음일까...



보기만 해도 애달픈 우리 하늘이

하늘이가 홀트일시보호소에 온 뒤로 이곳 직원들의 하루 일과는 하늘이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곳 모든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매번 ‘이런 문제를 가진 아이는 처음이야’ 했는데, 하늘이 처럼 여러 장애를 가진 아이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애달파. 여러 가지 수술로 하늘이가 지칠까 걱정은 되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가족처럼 든든한 선생님들이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있기에 하늘이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금의 순간을 견디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가장 시급한 건 갈라진 입술과 입천장을 막는 수술. 전문 의료진 소견에 의하면 하늘이의 경우 일반 구순열과 달리 코까지 갈라져 있어 앞으로 7~8번 정도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유 시 특수젖병 끝쪽을 살짝 눌러주어 분유를 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지만 밥 먹는 시간이 다른 아기들보다 오래 걸려, ‘먹다 지친다’고 표현할 만큼 하늘이에게는 먹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4월, 탐치과의 후원으로 깊이 갈라진 입 속을 잠시나마 막을 수 있는 보정기를 착용할 수 있게 됐고, 이후 사레가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먹기 시작했다고 하니 너무 기쁜 소식이었다. 수술을 하려면 몸무게가 매우 중요한데 큰 걱정을 덜어주게 해주신 탐치과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얼굴부터 발까지 이어지는 검사와 치료들

하늘이는 한 달에 5~6번 전문병원을 찾아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다. 출생 직후 심장 의 동맥관이란 혈관들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였지만 4월 초 검사에서는 정상이라는 기쁜 소식을 받았다. 몸 중앙으로 틀어져 있는 오른쪽 발바닥도 3개월 집스 끝에 좋아지고 있어 조만간 풀 수도 있겠다. 다만 발뒤꿈치 아킬레스건이 딱딱한 상태여서 늘려주는 수술과 요도 입구가 음경 끝 부분이 아닌 정상보다 아래쪽(요도하열)에 위치하고 있어 관련 수술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홀트의원 정기검진 시 등 꼬리뼈 부분에 이상 있다고 판단, 4월 초 초음파 정밀검사 의뢰 결과 꼬리뼈와 척추부위 지방종(Filum Terminale lipoma)이 있어 이 또한 정밀검사 후 수술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두 수술 모두 구개구순열 수술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 상황.

이 많은 수술을 하늘이가 다 견뎌낼 수 있을까? 현재 하늘이에게 안 급한 수술이 어디 있을까? 빠를수록 효과가 있는 수술이지만 아직 5개월인 하늘이에게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이는 장난감을 흔들어주면 잡으려 두 손을 뻗기도 하고 손을 입에 넣으려 하며 조금씩 커가고 있다. 선생님이 “우리 하늘이 잘 놀고 있어요?” 하고 물으면 밝게 미소 지으며 “네”라고 대답하듯이 웅얼이도 한다. 하얀 피부에 통통한 볼이 귀여운 하늘이를 보며 홀트일시보호소에 봉사자분들은 ‘순하고 잘생긴 미남’이라며 “지금도 외모가 출중한데 수술하면 더 멋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빨리 수술한 모습이 보고 싶어요”라며 하늘이에게 무한 사랑을 보내고 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하늘이에게는 아직 많은 검사와 수술이 남아 있다.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지만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간호사 선생님과 선생님들, 자원봉사자 분들의 보살핌과 관심, 사랑 속에 하늘이가 잘 성장해주고 있어 고맙고 감사하다. 앞으로 있을 모든 수술도 하늘이라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늘아... 비록 아프게 태어났지만 장애가 아닌 치유될 수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해. 옆에서 응원할 테니까 모든 수술 잘 이겨내기를 바랄게. 힘내!” #HOLT

글 _ 박혜연 · 홍보팀



1 다리교정을 위해 집스를 하고 있다.
2 탐치과 후원으로 보정기를 착용하고 분유를 먹을 수 있어 사레걸림이 줄어들었다.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지훈이는

중증 뇌성마비로 인해 입양가정을 찾기가 힘든 상황에서 지훈이에게 필요한 재활과 보호를 위해 장애아동시설로 떠났습니다. 지훈이가 위탁가정에서 받은 사랑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랑 속에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해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www.holt.or.kr

기업은행 048-036405-04-014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느라
살갓이 벗겨질 정도로
더운 3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꿈엡을 만났습니다.
홀트드림센터에서 1월부터
시작한 분유지원사업 소식을
듣고 무작정 찾아온
꿈엡의 엄마 꿈은은 혹시나
직원이 눈을 맞춰주지는 않을까
동동거리는 마음으로 애꿎은
아이의 웃만 만지작거립니다.



영양부족으로 팔 다리는 앙상하고 배가 부른 아이

분유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를 확인하며 지난주에 비해 체중은 늘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살피던 중, 팔다리는 앙상하고 배만 유난히 부른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14개월 아이의 피부라 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아이와 마찬가지로 깡마른 어머니를 보니 충분한 젖이 나오지 않아서 그동안 쌀 끓인 물과 미음 정도로만 아이를 돌봐왔던 것 같습니다. 가정조사를 먼저 한 후에 분유지원을 해야 하지만 절차는 잠시 뒤로 미루고 서둘러 체중을 재고 월령에 맞는 분유를 찾아 소독된 우유 병과 함께 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주전 홀트드림센터를 찾은 아이, 꿈엡(Kim Eng, 14개월)을 다시 만났습니다.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와 엄마 모두 한결 편안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체중을 재어보니 몸무게는 그다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영양결핍을 보상받기에 2주라는 기간은 역시 무리였나봅니다. 그래도 분유를 열심히 먹고 조언대로 청결한 환경에서 수유를 한 후 설사는 점차 멎어간다고 하니 다행이었습니다. 큰 시내로 나가 좀 더 큰 분유전문점에서 꿈엡에게 맞는 특수영양분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장 적합한 분유를 찾아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캄보디아 빈곤가정 아이들을 위한 분유지원을 시작한 지 이제 네 달 남짓, 우리는 수많은 어머니의 눈물을 읽어야 했습니다. 영양결핍과 HIV... 아이들의 면역력과 건강을 위해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이곳 캄보디아. 하루 3달러 수입, 분유 1통 6달러. 분유지원이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한숨을 잠재우는 분유 한 통

꿈엡이 잘 지내고 있는지 자꾸만 눈에 밝혀 찾아간 집. 상상은 했지만 생각보다도 더 어려운 살림살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엄마 꿈은이 들려준 이야기는 대다수의 도시 빈민가정이 그러하듯 눈물 짓게 했습니다.

쁘레벙의 한 시골마을에서 자라 스물셋에 한 남자를 만나 1997년 가정을 꾸렸지만 4년 뒤 남편은 에이즈로 사망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에이즈를 옮긴 꿈은은 2005년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아이까지 갖게 되었지만, 임신 7개월 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딸을 출산해야 했고, 돈을 벌기 위해 아직 핏덩이인 첫 아이, 분뻘세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겨두고 프놈펜으로 왔다고 합니다. 꿈은은 때로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때로는 쓰레기를 주우며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오다 2011년 현재의 남편을 만나 꿈엡을 낳았습니다.

비록 생활은 어려워도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겠지만 꿈은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에이즈를 갖고 있었지만 줄 수 있는 게 없는지라 모유를 먹여야 했고, 쌀을 끓인 물을 먹여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건강하기만을 바랐건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은 또래 아이들과 달리 서지도, 기지도,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남편은 최근 일거리가 없고 건강

꺼져가는
듯했던 생명이
희망의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 칭얼대는 끄맹을 위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해먹을 흔들어 주는 것뿐. 쌀독은 이미 비어버린 지 오래고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이웃도 없습니다. 그나마 홀트드림센터에서 매주 받아오는 작은 분유 한 통이 엄마의 한숨을 잠재울 뿐입니다.



도 좋지 않아 집에서만 지내고 있고 쓰레기라도 주위 입에 풀질을 해야 하지만 연약한 어린 딸을 두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꿈온을 더 슬프게 합니다.

배가 고파 칭얼대는 끄맹을 위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해먹을 흔들어주는 것뿐. 쌀독은 이미 비어버린 지 오래고 이제 더 이상 돈을 빌릴 이웃도 없습니다. 그나마 홀트드림센터에서 매주 받아오는 작은 분유 한 통이 엄마의 한숨을 잠재울 뿐입니다. 엄마와 같은 병에 걸려버린 끄맹을 병원에도 데려가야 하고 치료도 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할 수는 있는 건지 시작조차 보이지 않는데 엄마 꿈온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엄마를 힘없이 바라보는 끄맹이 오늘따라 더 애처로워 보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희망, 6달러 분유

꿈맹에게 한 달 동안 필요한 분유는 400g짜리 여덟 통입니다. 6달러짜리 분유 여덟 통이면 가난한 엄마 꿈온이 맘 놓고 딸에게 우유병을 쥐어줄 수 있습니다.

홀트드림센터가 위치한 트라피앙 안전지역에는 수많은 꿈맹이 오늘도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의 영양이 좋지 않으니 양질의 모유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가장 훌륭한 대안은 위생적이고 영양이 풍부한 분유를 사서 먹이는 것뿐입니다. 하루 3달러 벌기도 벅거운 이곳 캄보디아에서 분유는 사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직장인들의 하루 점심값이면 꿈맹의 5일치 분유 한 통이 확보됩니다. 오늘도 가난한 엄마 꿈온은 점점 비어가는 분유통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습니다. #hlt

글 _ 이은정 팀장 · 복지지원팀

후원으로 다리 수술 받고 고향 캄보디아로 돌아갔던 넵래티나를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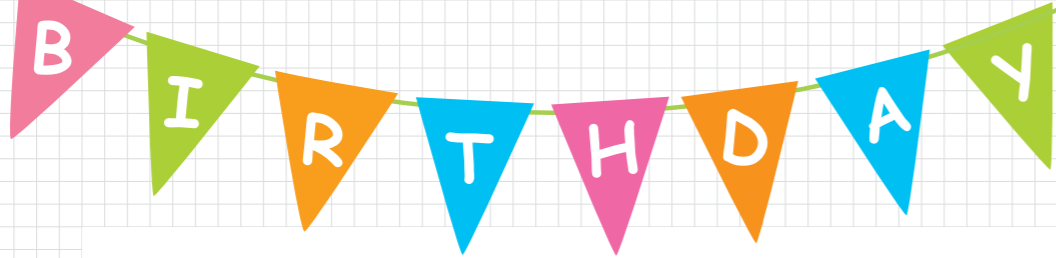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넵래티나입니다.
 막상 편지를 쓰려니 떠오르는 분들이 많아요.
 말리 이사장님과 조병국 선생님, 김대열 회장님과 홀트일산복지타운 식구들. 제 다리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저를 편안하게 해주신 예순병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후원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도움과 미소, 그리고 애정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멀리서나마 다시 감사인사를 드릴 수 있어 행복하고 기쁩니다. 한국에 가게 된 것, 또 그곳에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된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대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한국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꿈꾸었던, 다른 사람처럼 쉽게 걷게 되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동생들과 선생님들도 너무 놀라우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저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셨고 그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저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친절을 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국 후원자 분들 모두 오랫동안 행복하길, 건강하길 언제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신께 늘 여러분들을 보살펴주시고 지켜달라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캄보디아에서 넵래티나 드림



1 넵래티나를 돌봐 준 분들(왼쪽부터 말리 이사장, 이은정 팀장, 조병국 원장, 김대열 회장)
 2 공항에서 떠나기 전 인사하는 넵래티나와 김대열 회장
 3 말리 이사장님과 마지막 인사

장애로 걷기가 어려웠던 캄보디아 소녀 넵래티나는 홀트아동복지회와 예순병원 후원으로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3월 고향의 머물던 복지시설로 돌아갔습니다.



돌상 후원 : 에스파티 김진렬 대표

에스파티 김진렬 대표는 돌잔치이벤트 회사를 시작하면서 마음 속 한편에 자원봉사에 대한 소망을 품어오다 2011년, 홀트아동복지회에 무작정 연락을 했다. '나의 재능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마음이 연이 되어 2012년부터 위탁가정 아동들의 돌잔치상을 마련해주기 시작했다.

"위탁아동들을 만나고 가면 마음이 찡합니다. '빨리 가정을 찾아 부모님과 같이 돌잔치를 하면 좋을 것을...' 하며 속상해하기도 하고, 한편 입양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했어요. 나도 한 번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찌 보면 '자원봉사'가 없어야 좋은 일인데 계속하고 있으니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힘 닿는 데로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파티는 현재 기업행사를 위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위탁아동들을 위한 봉사는 여전히 초심처럼 함께해주고 있다. 바쁜 일정 가운데도 늘 잊지 않고 손수 챙겨주시는 김진렬 대표와 강수지 대리, 최윤란 실장의 봉사로 매년 20~30명의 위탁아동들이 예쁜 돌상에서 돌잡이도 하고 케이크 불도 켜며 위탁부모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있다.

아동들의 첫 생일, 행복 순간을 만들어주는 나눔꾼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첫돌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다. 특히 첫 아이는 더. 그래서 성장앨범도 찍고 돌잔치를 열어 '우리 아이 이만큼 컸습니다' 자랑하고 기억하려 한다. 어떤 이의 첫 아이였던 홀트아동복지회 위탁아동들도 첫 생일인 '돌'을 남부럽지 않게 추억하고 있다. 바로 '에스파티' '삼성화재 홍보팀 미디어파트' '마이대디'의 든든한 삼촌·이모들 덕분이다.



돌 영상앨범 제작 후원 : 삼성화재 홍보팀 미디어파트 김대홍 선임

"아이고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해도 되나요?" 키다리방송카메라를 어깨에 맨 채 머쓱하다며 자리를 피하는 이 분. 위탁아동들의 멋진 추억, 돌잔치 현장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영상앨범을 제작해주시는 김대홍 선임이다.

김대홍 선임은 삼성화재 홍보팀 미디어파트 직원으로 사내 재능기부 봉사를 통해 2012년 2월부터 14개월이란 시간 동안 위탁아동들의 돌잔치 현장을 지켜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누구가를 위해 할 수 있어 행복하죠."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그는 그저 일의 연장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힐링'을 받게 됐다고. 두 아이의 아빠다 보니 이곳 아이들이 남다르지 않게 다가온다며,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촬영하고 앨범을 제작해주려 노력한다. 간혹 회사 일로 돌잔치에 못 오는 날이라도 생기면 아이들 얼굴이 눈에 서린다는 김대홍 선임. 그는 "어찌보면 이 앨범이 아이들의 첫 기록이잖아요. 제 부재로 아이들의 첫 기록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꼭 참석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며 책임감 있는 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삼성화재 미디어 홍보팀은 2010년부터 홀트 아이들을 위한 영상 제작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사진 찍기, 장애 이해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돌 앨범 후원 : 마이대디 오장석 대표

마이대디 홍대스튜디오가 유례없이 북적거리는 날이 있다. 바로 홀트 아이들의 돌 촬영이 있는 날. 12~15명의 아동들과 위탁부모, 마이대디 홍대점, 일산점 촬영 스태프 12명까지 스튜디오를 들렀다 났다 대소동이 일어난다. 이름하여 '행복한 대소동'.

"처음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저희가 사무실에 방문해서 촬영하길 원하셨는데, 아이들에게 기억될 좋은 앨범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스튜디오에 오시기를 요청드렸죠." 많은 추억과 기억을 주고 싶다는 오장석 대표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 '행복한 대소동'을 진두지휘하고 계신다. 지금껏 촬영한 아동만 300여 명. 일반가정도 큰 마음먹고 촬영하는 돌앨범이기에 값으로 치면 꽤 많은 비용을 '마음'으로 후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돈으로는 그렇게 많은 기부를 못할 수 있지만 재능기부는 틈틈이 할 수 있어 좋아요. 그 순간은 정말 저도, 직원도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장석 대표는 특히 장애로 아팠던 아이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길 바란다고 애뜻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한글



***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주시는 백일·돌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부 명스튜디오, 천사의하루, 사과나무 파주점, 베일리수 신분점, 에스파티, 포즈양방, 마이대디, 삼성화재미디어파트, 사진동아리 '점프', 베이비뮤즈, 필그림피
- 강원사무소, 스튜디오, 선 혼레이아기, 오강재, 몽유애웨딩 ●경남사무소 하늘꿈스튜디오 ●충청사무소 베리베베 스튜디오 ●대구사무소 대구백일날 ●아름
- 들 글로리파티 ●대전클로버 대전도시공사 사진동아리, 아가류, 청주 한 살파티,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아침들 카파스튜디오, 포토넷스튜디오, 이블리에 드 망
- 고정림동, 네이버카페 도담도담, 배추와 열무, 파티엘리먼트, 풍산아티스트 박영미, POP디자이너 이은하, 열린유치원

위탁아동들의 예쁜 두상을 찾아주는 지오헬멧



영유아시기에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두상'이다. 일명 '납작머리증 후군'이란 진단명이 나올 만큼 두상 또한 유아시기 중요한 성장 중 하나이다. 두상이 비대칭하게 변형될 경우 안면골 기형을 동반하여 시신경 변형이 올수도 있고, 심한 경우 뇌 성장발달이나 신경성장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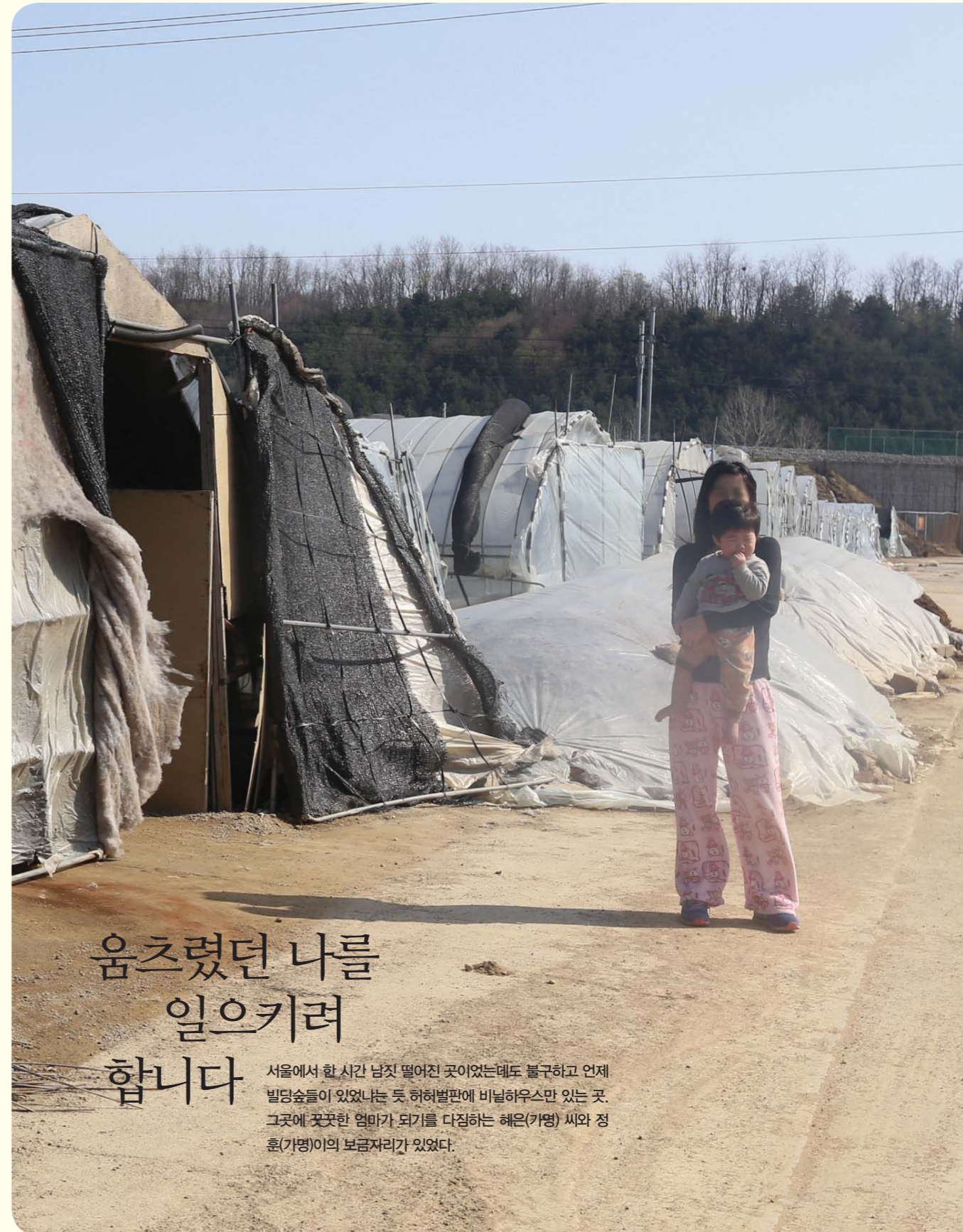
홀트아동복지회 위탁아동들도 안면기형 등 장애나 또는 이미 잘못된 양육으로 두상이 비대칭으로 홀트아동복지회 품에

안기는 아이들이 있다. 10여 년 전에만 해도 이런 아이들의 두상교정은 위탁봉사자의 몫이었으나 지금은 '유아두상교정 치료'라는 것이 생겨 교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명당 수백만 원이 넘는 교정헬멧 구입비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교정치료차 방문한 위탁아동을 만난 지오헬멧 김진영 대표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입양을 기다리는 위탁아동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으며, 입양시 외모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되는 현실이란 말에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라도 해주고 싶었다'며 후원 동기를 전해 주셨고 지금까지 12명의 아이들이 교정을 받았고 받고 있다.

한 회사의 대표라기보단 한 아이의 아빠, 삼촌처럼 진심으로 위탁아동을 걱정하고 지원해 주시는 김진영 대표. 다소 비싼 의료기구임에도 선뜻 후원을 자처해 주신 동기과 보람에 대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업체인 만큼 회사의 이익과 재능을 사회 어려운 아이들에게 다시 환원한다는 것과 작은 부분이나마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직원들의 보람입니다"라고 전해 주셨다. 나눔이 단지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나눔이지 않냐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홀트에는 좋은 이웃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는 만남이었다. **Heart**



지오헬멧은 아기의 비대칭 납작머리를 교정해주는 아기의 머리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의료기기로 두상교정모는 미국에서 1997년에 처음 상용화되어 시작되었고, 지오헬멧은 2008년도에 두상교정모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지오헬멧이라는 브랜드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움츠렸던 나를 일으키려 합니다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곳이었는네도 불구하고 언제 빌딩숲들이 있었나는 듯 허허벌판에 비닐하우스만 있는 곳. 그곳에 곳곳한 엄마가 되기를 다짐하는 혜은(가명) 씨와 정훈(가명)이의 보금자리가 있었다.



겨울 한기를 피하고자 숨으로 둘러싼 집

혜은 씨(24)를 만나러 가는 길,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라 알려준 곳은 비닐하우스 단지가 길게 뻗은 곳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다 해서 어떤 곳인지 궁금했던 차. 그러나 모두 비슷해 보이는 비닐하우스다 보니 어디가 집이고 농사를 짓는 곳인지 알 길이 없었다. 전화를 받고 나온 혜은 씨처럼 보이는 여성이 고철 더미가 가득 쌓인 한 비닐하우스에서 손을 흔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왼쪽에는 집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가, 앞쪽에는 농사를 짓는 비닐하우스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고등학교 1학년 동생과 아버지, 혜은 씨와 정훈이(13개월) 네 식구가 살고 있었다.

유난히 길고 추웠던 지난 겨울에는 난방비를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 두꺼운 솜으로 벽을 둘러서 한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지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봄을 맞이하는 시기여서 다행히 춥지는 않았지만 겨우내 막혔던 습기가 올라온 탓인지 방 곳곳에 곰팡이가 가득했다. 아직 면역력이 약한 정훈이가 잘 견뎌내는 것이 대견하다고 생각될 만큼...

혜은 씨와 정훈이는 종일 이곳 비닐하우스 집에서 지내는 듯 보였다. 집 앞은 흙먼지 가득한 농토다 보니 정훈이를 데리고 나가기도 겁나지만 혜은 씨 스스로도 아직 나갈 용기를 못 내고 있는 듯 했다.

포기하지 않은 생명, 그러나 가족의 반대

혜은 씨는 2년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정훈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미혼인지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앞섰지만, 제 안에서 꼬물거리는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 낱아 기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이후 남자친구는 연락을 끊었고, 다행히 병원에서 소개해준 미혼모자 시설을 통해 출산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를 안고 갈 곳이 없던 혜은 씨. 주저하다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이야기는 '아기를 포기하라'는 것. 하지만 부모 자식 인연을 끊겠다며 강력히 반대하던 아버지도 딸의 출산을 보며 결국 허락 아닌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미웠어, 24살 이제 꽃다운 나이인데 자신의 인생 못 살고 ... '이젠 네 인생 끝이다' 했지만 지도 엄마라고 키우겠다는데 어찌겠어! 나라도 안고 가가지."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말씀하시는 아버지. 혜은 씨 못지않게 마음고생 하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손주 정훈이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아버지이지만, 그때는 딸의 인생이 앞서 걱정되었기에 혼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놓지 않은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정훈이는 크게 아픈 적 없이 기특하게 1년을 살아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방긋 웃음을 지어가며 품에 포옥 안겼다. 마치 혜은 씨에게 오면 그 날처럼...

아들을 위한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 작은 소망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상추, 시금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혜은 씨 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50만 원 남짓. 여기에 혜은 씨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4명 가

족의 한 달 생활비다. 비닐하우스 임대비도 몇 달째 밀려 있는 형편이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요즘 혜은 씨는 아버지의 한숨어린 마음이 자꾸 느껴진다고. 한 달 생활비도 고등학생인 동생을 뒷바라지하고 최소한의 정훈이의 분유와 기저귀 등을 사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다 보니 날로 성장하는 정훈이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장난감이라도 사주고 싶지만 마트에서 꼭 필요한 기저귀만 들고올 때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지금 갖고 있는 옷과 장난감도 지인들에게 받은 걸로 사용하고 있다고. 엄마가 주는 치즈를 맛있게 먹는 정훈이. 그러나 언제 사왔는지도 모를 김밥 두 줄이 책상에 놓여 있는 걸로 보아 혜은 씨는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은 듯 보였다. "돈 벌면 정훈이 장난감을 마음껏 사주고 싶어요." 자신 것보다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혜은 씨. 부족해 보여도 한 아이에게는 세상인 엄마다.



툴툴 털고 세상을 향해 일어서기

어린 나이지만 정훈이 앞에서만은 영락없는 엄마인 혜은 씨. 아들이 웃는 모습만 봐도 하루가 어찌 가는지 모르겠다. '어떤 엄마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혜은 씨는 '자상한 엄마요'라고 짧게 답한다. 이혼하신 부모님 사이에서 엄마의 사랑이 그리웠기에 자신의 아이에게는 더 자상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혜은 씨는 이제 혼자 살아갈 힘을 키우려 마음먹고 있다. 아직은 비닐하우스 속에 숨은 듯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스스로 이곳을 나가 세상을 향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로지 정훈이를 위해서.

이제 봄날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정훈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어린이집을 찾아볼 거라 한다. 그리고 판매직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한 후, 고졸 검정고시도 마치고 정훈이를 보살피기 위한 정규직 자리로 옮기고도 싶다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혜은 씨와 정훈이가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 잘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하고 기도해본다.

'혼자서 꾸는 꿈은 몽상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혜은 씨 혼자서 꿋꿋하고 goodgood한 엄마, 자상한 엄마가 되는 것은 그냥 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홀트아동복지회와 많은 후원자분들이 함께하기에, 그것은 실현 가능한 꿈일 수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본다.

글 _ 김유진 · 후원팀

'꿋꿋goodgood한 엄마' 캠페인 후원
1899-0923 / 02-331-7075
www.holt.or.kr

'꿋꿋goodgood한 엄마'는 미혼양육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고 good(좋은)한 엄마로 살아가길 희망하고 노력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혜은 씨에게는 양육비로 월 20만 원이 1년간 지원됩니다.

미혼양육모 이동양육지원비 신청은 홀트 아동복지회 본부 또는 지방사무소에서 접수받으며, 민간기관 증복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으로 구비서류와 양육 및 자립계획서 등을 제출하시면 선정을 통해 1년간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 02-331-7034
전국 1588-7501

미혼모자 자립지원 모금
1899-0923
홀트아동복지회

미혼모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이
그들에겐 생활고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미혼모자가정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미혼모의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아이들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혼모의 자녀
또한 훗날 우리 아이의 친구 또는 이웃이 되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미혼모자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비뚤어진 시선을 바로잡아주세요.

* 홀트아동복지회는 '재능기부'로 미혼모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 광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매체 기부가 가능한 개인, 기업과 포스터가 필요한 분은 홍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31-7079 pr@holt.or.kr

어머내인 당신을 응원합니다 😊

365 BABY CARE KITS



365일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자가정을 지원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응원캠페인이 5월 8일 시작되었습니다.

●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2년 8월 미혼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혼모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자녀양육을 하려는 미혼모가 1984년 5.8%, 1998년 7.2%, 2005년 31.7%에서 2009년 66.4%로 증가하는 등 최근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혼모의 의지만큼 사회인식과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 미혼모가 된 이후 다니던 학교나 직장을 포기하는 건 기본이요, 가족과 아이 생부의 외면도 당연하게 여길 만큼 아이를 선택한 미혼모가 기댈 곳은 작아져만 갑니다. 미혼모의 행복은 아이의 행복과도 연결됩니다. 내 가족, 내 이웃으로, 내 아이 친구로 만날 미혼모자가정의 행복이 자라게 하는 방법! 편견이 아닌 '응원'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김대열 회장과 김성은 홍보대사가 여성가족부 강단에 모였습니다. 1년 365일 미혼모자가정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와 기업, 사회복지기관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 365 BABY CARE KITS는 사회공헌 협약식이었습니다.

365 BABY CARE KITS는 기저귀, 분유, 젖병 등 미혼모들이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 한 달 분량을 담은 패키지로 응급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LIG가 후원한 1억 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365 BABY CARE KITS의 꿈

365 BABY CARE KITS는 꿈을 꾸어봅니다. 미혼모자가정의 모든 시름을 털어낼 수는 없지만 산타클로스가 머리맡에 놓고 간 어린 시절 선물처럼 잠이라도 행복과 희망을 꿈꾸기를 소망해봅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365일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

5월 8일,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과 (주)LIG 이효구 대표,



• 365 BABY CARE KITS 신청 www.holt.or.kr

• 기부 참여 : 네이버 해피빈 <http://happybean.naver.com>

365 BABY CARE KITS 현장 속



1 접수가 확인되면 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과 필요물품을 파악합니다.



2 접수 시작 3일 만에 200여 명의 신청자가 쏟아졌습니다. 기저귀, 분유, 수건, 젖병 등 필요물품을 꼼꼼히 담습니다.



3 응원카드와 물품설명서를 넣고 다시 한 번 체크.



4 BABY CARE KITS 스티커와 택배 송장을 붙이면 끝!



5 키트가 완성됐습니다.



6 365 BABY CARE KITS 받으세요!

세상 모든 것이 은경이의 그림, 그 안에 배곡히 담긴 순수한 희망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고 한 아이가 활짝 웃으며 방으로 들어선다. 스케치북, 물통, 붓, 팔레트를 한가득 들고서도 마냥 씩씩한 아이, 돌봐주시는 선생님께 오늘 하루 어땠는지 재잘재잘 이야기하는 아이, 자그마한 체구에서 어쩔 이런 긍정의 기운이 그득그득 배어나올까 궁금해지는 아이, 홀트일산복지타운 그림 그리는 소녀 김은경(19)이다.

얼음공주의 마음을 열게 한 그림

은경이(19, 지적장애 2급)는 한때 얼음공주라고 불릴 만큼 말이 없었다. 2008년 홀트일산복지타운에 들어왔을 때, 은경이는 낮선 주변에 놀라 다시 한 번 마음을 닫았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없이 두렵기만 했다. 그런 은경이의 마음을 조금씩 파고 들었던 건 그림이었다. 완성된 그림을 보지 않고도 선물 받은 퍼즐을 척척 맞추어냈고, 나뭇가지, 잎사귀, 꽃잎, 선물을 포장했던 포장지도 은경이에게는 훌륭한 그림도구가 되었다.

미술수업을 받는다는 은경이를 따라 향한 곳은 ‘영혼의 소리’ 합창단 연습실, 이곳 한편에 마련된 큰 책상이 은경이 작업실이었다.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있다고 배시시 웃는 은경이, 무슨 일인지 살짝 물으니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날 미술선생님을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면 드릴 꽃을 만들 거예요”란다. 알록달록 물감통 사이로 예쁜 색깔 종이를 꺼내고, 스승 꽃잎을 만들어 나뭇가지를 둘러싼 후 아끼는 반짝이도 붙인다. 거기에 은경이만의 선을 그려넣으니 30분도 채 안 되어 멋진 장미꽃 완성.

은경이는 언제부터 그림이 좋았을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는 게 좋았어요.” 수줍게 웃지만 푹푹박박 이야기하는 은경이는 그림 이야기할 때 가장 얼굴이 환해진다.



다.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만들면 잘했다고,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기분 좋아서 그림을 더 많이 그리게 된 것 같아요.” 칭찬은 은경이의 그림에 날개를 단다.

그림이 발휘하는 힘, 힐링과 자신감

그림을 그릴 때나 그림을 볼 때 은경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볼 때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풀려요.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왜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금세 까먹어버리게 돼요.” 과연 그림을 사랑하는 은경이의 대답이다. 예전에 반 고흐 전시회에 가보고 고흐의 그림에 흠뻑 반해버렸다는 은경이, 고흐 그림 중에서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 가장 좋단다. 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개운해진다고. 힐링이라는 말이 트렌드처럼 쓰이는 요즘이지만, 은경이의 그림이야말로 꼭 맞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은경이에게도 은경이의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웅송그려 앉아 있는데 익숙했던 은경이에게 그림은 자신감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같은 반 아이들도 같은 방 친구들도 은경이의 그림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고, 은경이는 자존감이라고 바꾸어 써도 손색없을 만큼 자신감을 찾아갔다. 같은 방 친구들은 은경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친구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은경이 언니 그림 짱이에요!” 라고.

그럼 은경이는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고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느낄까. “친구가 더 많아졌어요!”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다. 동생들도 은경이를 많이 따른다고 한다. 은경이가 그린 그림을 따라하거나 만들어놓은 꽃을 모델 삼아 그대로 만들어보기도 한다고. 그림으로 인해 웃음도 훨씬 많아졌고, 낮가리는 일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일주일에 두 번, 본격적인 그림 수업

간단한 스케치부터 알록달록한 만다라까지 차곡차곡 쌓여간 은경이의 그림. 홀트일산복지타운 선생님들은 은경이가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고 한눈에 재능을 알아보았다. ‘은경이가 좋은 미술 선생님을 만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재능을 꽃피워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2011년 9월 지금의 미술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 최유진 선생님은 은경이의 처음을 어떻게 기억할까. “미술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쩔 이렇게 독특하게 그릴 수 있을까 신기하더라고요. 은경이가 타고난 재능이 보통은 아니겠구나 싶었고요.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조금 늦지만, 옆에서 도와준다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군요.” 자원봉사로 시작한 일, 하지만 은경이를 본 순간 천부적 재능에 놀라 수제자로 삼게 되었다고 방긋이 웃는 최유진 선생님.

“보통 아이들은 구체적 그림에서부터 점점 자신만의 특징을 잡아키는



1 첫 전시회 작품.
2 3 사론방 천장과 문도 은경이의 작품이 되었다.

경우가 많은데, 은경이는 그 반대예요. 이미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단 순회랄까, 아이디어회랄까. 그게 은경이에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은경이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재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과 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덧작업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 보통 아이들은 하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지만 은경이는 방 천장도, 방문도, 지나가



사론방 언니, 동생들과 함께 : 왼쪽부터 정은숙(중3), 김은경(고3), 한아름(31), 서유정(초4), 강소영(중2)

는 나뭇가지도 스케치북이 된다. 또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림은 뒤돌아보지 않는 편인 데 비해 은경이는 그림이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한다. 색도 여러 가지 입혀보고 선도 이리저리하게 그어보고, 종이도 붙여보고 반짝이도 뿌려본다. 그런 판단은 모두 은경이가 갖고 있는, 흉내 낼 수 없는 재능이다.

두근두근, 콩닥콩닥, 은경이의 첫 전시회 준비

은경이의 그림으로 전시를 열면 좋겠다는 선생님의 바람은 JW중외제약에서 은경이의 이야기를 듣고 후원을 해주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JW중외제약에서 매해 여는 '영아트 전시회' 한편에 은경이의 그림을 걸 공간을 마련해줄기로 한 것. "전시회를 한다니 그렇게나 좋았나봐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까먹을 만큼 그림 그리는 일에 집중하더라고요. 저러다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하지 싶을 만큼 열심이었어요." 은경이는 모두가 놀랄 만큼 전시회 준비에 몰두했다.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내 그림에 어떤 제목을 붙일지' 고민하면서 말과 글도 늘어가고, '내 그림의 가격을 얼마로 매기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돈에 대한 개념도 익혀갔고요. 은경이에게 전시회는 그림을 걸어놓는 것 이상으로 배우는 게 많은 일이었죠."

커다란 선물상자를 열어보는 것 같았던, 첫 전시회

2012년 11월 22일, 드디어 은경이의 첫 전시회가 인사동 공평갤러리에서 열렸다. 은경이는 이 전시회에 자유롭게 뻗어가는 나무 그림을 비롯한 작품 몇 점을 내놓았다. 은경이의 상상 속 이야기는 무궁무진했다. 세상을 만날 경험이 많지 않았던 덕분에 그림이 훨씬 더 자유롭기도 하고, 언뜻 봐서 뭘 그렸는지 알지 못해도 그림을 보고 있을 때 느껴지는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제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은경이에게 전시회 하면서 어땠느냐고 물으니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한다. "그림 보고 예쁘다고, 잘 그렸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제 그림을 사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상상 못할 일이었어요." 어떤 그림은 누가 사갔고, 어떤 컵은 누가 좋아했고... 은경이는 그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그림으로 선물하고 싶은 건, 희망

은경이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반 고흐처럼 잘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그림을 그려보고 싶고, 그 그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기쁜 마음이나 행복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연 은경이는 올 11월에 또 한 번의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이번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그림과 작품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했던 꽃이 시드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만들기 시작했다는 꽃, 미술 선생님의 웃는 모습을 그려서 가장 좋아한

다는 초상화, 은경이는 그림으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저를 보고, 제 그림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마음이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미술 선생님은 은경이가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좋아하고 보고 싶은 전시회를 보러 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은경이만의 작업실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희망이라는 말은 어쩌면 굉장히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선불리 누군가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게 요즘 우리가 디디고 사는 현실이기도 하니깐. 하지만 사람들에게겐 그들만이 가진 눈부신 재능이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다. 그 재능은 일찍 발견되기도 하고 아주 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지만 노력 없이는 찾아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신기하게도 재능은 희망을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전 속의 말이나 위로의 클리셰로만 여겨지지 않게 된다. 은경이의 재능은 '포기하지 않아요'라는 좌우명과 만나 반짝반짝 빛나는 희망이 되었다. 식상한 말이 아니라 힘을 가진 말이 된 것이다. 누구에게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멈춰져 있는 말이 되어선 안 된다. 은경이의 그림과 재능이 희망을 만나 날갯짓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art

글 _ 문재연 재능봉사자





우리 아기들 땀시 출세했다니까요~

- 위탁아동을 만나 매일이 행복한 엄마 고복순 씨

5월 10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린 제8회 입양의 날, 홀트아동복지회 위탁봉사자로 16년 동안 헌신하신 고복순(59) 위탁어머니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애를 가져도, 돌보기 힘들어도 언제나 '네'로 화답하며 만난 아이가 어 느덧 50여 명. 아이들이 있어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말하는 고복순 씨의 희망이야 기를 들어보았다.

첫 아들이 초등학교 때 시작한 봉사

올케가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집 가까이에 살았던지 라 자주 아기들을 볼 수 있었지요. 늦게 결혼해서 아들 하나만 낳아서인지 어찌나 아기들이 예쁘던지, 어느 날 올케한테 나도 하고 싶으니 소개해달라 했지요. 올 케는 '형님 힘들어서 못한다고' 만류했는데 한번 마음 먹으니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이어서 동생 돌보면서 서로 크면 우리 아들도, 아이도 형제가 있으니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보물 같았던 첫 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밖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아이가 언제 내 품에 오나 정말 '학수고대'란 말이 딱 맞을 만큼 목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왔어요! 그것도 딸이었지요. 얼마나 예뻐졌어요! 어디서 이런 '보물'이 나한테 왔을까 싶었죠. 정말 귀하게 키웠어요. 지금도 눈에 선할 만큼 가슴에 남는 아이예요. 나를 바라보던 눈과 미소, 품에 안았던 느낌까지. 8개월간 쌓은 정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너무 힘들었어요. 청승맞게 비를 맞으며 울기도 했으니까요. 입양부모를 만난 건 정말 행복한 일인데 그때는 첫 경험이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슬펐으니까요.

기도로 받고 기도로 키운 내 아이들

첫 아이 뒤로 들쭉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웠어요. 울음이 많았던 아이라 제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죠. 결국 입양가정을 찾지 못해 장애 아동복지시설로 갔어요. 그때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더 애뜻한 마음으로 키운 거 같아요. 더 오래 기억나기도 하죠. 밤에 응급실로 된 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고, 구개구순술 아기부터 하루에 약을 10번을 넘게 먹었던 아이도 있어요. 그래도 입양가정을 찾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지금 키우는 애원아도 1.8kg 태어났어요. 너무 작아서 이 아기가 정말 클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렇게 커가니 얼마나 예뻐요. 장애아들 만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아이라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웠어요. 또 혹여나 나 외에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어찌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니 내 품을 거쳐 간 아이들이 50여 명이나 되네요. 참 부자죠? 자식 부자!

두 배 이상 행복하고 새롭게 새워준 위탁 봉사

친정아버지가 엇그제 집에 오셔서 진열장에 놓인 제 상장을 보시더니 "장관상 받았냐? 아따~ 큰 일 했구먼!" 칭찬을 하시는데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입양의 날 때 장관상도 받고 정말 출세했지요. 내 새끼들이 준 상이란 생각이 들어 더 많이 행복했어요. 누가 나에게 상을 주고 TV에 나오게 하겠어요. 다 우리 아이들 덕택이죠. 정말 이 아이들 때문에 살아요. 아주 행복하게... 힘들어도 누가 나를 이만큼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하겠어요. 아이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건 우리 남편도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로 느껴요. 힘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힘주시는 데까지 일하겠으니 제 건강을 보호해달라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정말 위탁봉사자로 일하는 것만큼 사랑과 보람이 가득한 일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글_김은희·홍보팀



1 무뚝뚝한 남편도 아이 앞에서는 같은 아이가 된다며 남편이 있어 위탁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고마워했다.
2 입양의 날 표창을 받는 고복순 위탁모.
3 손주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 아이랍니다! 부부는 16년을 가 정위탁 봉사자로 함께했다.

사랑이 가득 찬 위탁가정을 찾습니다.
문의 전국 1588-7501, 서울 02-331-7041~8

● 입양의 날 기념식 및 행사 ●

서울사무소

'제8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5월 10일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과 정책발전에 기여한 이들과 입양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려, 우리회 고복순 위탁모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5월 14일은 흥대 거리에서 입양인 식개선을 위한 거리캠페인도 펼쳤다.

강원사무소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사무소가 주관한 입양의 날 기념식이 10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300여 명의 도내 입양 가족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유공자 포상과 입양가정 사례발표 등이 이어졌고, 입양의 날 홍보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도 펼쳤다. 후원해주신 (주)제이비코리아와 홀트 강원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경남사무소



입양의 날 기념식이 5월 11일 창원 뉴코아아울렛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입양가족이 출길 수 있는 행사가 열렸으며, 입양주간을 맞아 5월 10일 '입양홍보캠페인'을 창원 이마트에서 펼쳤다.

광주사무소



제8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5월 10일 오후 5시 Y-웨딩컨벤션 2층에서 광주광역시 지원으로 개최하였으며, 입양가족, 후원자, 유관기관 단체, 관계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구사무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1일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사무소가 주관하는 입양의 날 기념식 및 입양 홍보 음악회, 사진·UCC공모전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부산사무소



입양의 날 기념식 및 입양가족 한마당 큰잔치가 5월 11일 부산교육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황재필 소장이 유공자로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입양홍보 캠페인을 5월 15일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개최, 입양인식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사무소



입양의 날을 맞이하여 대전광역시 주최,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사무소,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아동상담소 주관으로 5월 5일 은행동 "차 없는 거리"에서 입양가족 사진전 및 거리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5월 10일, 11일 양일간 대전 동구 청소년 자연수련관에서 대전, 충남·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가족 행복캠프를 열었다.

인천사무소



제8회 인천 입양의 날 기념식 및 한사랑 가족축제가 인천광역시 주최, 인천사무소 주관으로 5

월 11일 인재개발원에서 관계자 및 유관기관, 입양가족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또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천터미널 지하철 역사에서 국내입양관련 사진전과 국내입양 캠페인이 펼쳐졌다.

● 사회공헌 소식 ●

한화투자증권 사회공헌기금 전달식 가져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이 5월 9일 한화투자증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임일수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과 직원들이 지원한 이번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은 사회 취약계층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로, 기부금은 결혼이주여성 경제교육,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용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주)해피랜드 F&C, 1억원 상당의 아동의류 전달



(주)해피랜드 F&C(대표이사 임용빈)는 4월 19일 우리회에 1억 원 상당의 아동의류를 후원했다. 2007년 우리회와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한 이후 (주)해피랜드 F&C는 매년 1억 원 상당의 아동의류와 용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감사한 후원기업이다.

LIG그룹, 사회공헌기금 1억 전달

우리회와 LIG그룹(대표 이효구)은 4월 2일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회공헌기금 1억은 (주)LIG를 비롯한 손해보험, 넥스원, LIG시스템,



투자증권, 에이디피, 엔셀링, 휴세코 등 계열사 및 관계사가 한마음을 갖고 조성한 기금으로, 사회 취약계층인 미혼모자가정 영유아들을 위한 양육물품 지원, 가정위탁 아동들을 위한 '사랑의 나들이', 요보호아동들을 위한 양육 및 의료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ING생명과 기부 MOU체결



ING생명(사장 존 와일리)과 우리회의 기부협약식이 3월 14일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ING생명은 '오렌지 데이 캠페인(매월 바자회, 기부, 자원봉사, 자선 콘서트 등)'과 직원들의 끝 전후원, 그리고 회사의 매칭후원 등을 통해 홀트일산타운에서 생활하는 미입양 장애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 본부 ●

입양가족포토에세이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 개최



우리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2013 입양가족포토에세이공모전 시상식이 5월 23일 강당에서 김대열 회장, 송재호 홍보대사, 윤택홍보대사 및 수상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 10점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상금을 전달한 이번 행사는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을

높이고, 공개입양 도모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올해로 7회째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LIG그룹과 '365 베이비 케어 키트' 협약체결



우리회는 5월 8일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LIG그룹과 함께 미혼모자가정을 돕기 위한 응급지원체계인 '365 베이비 케어 키트' 협약식을 진행했다. 미혼모자가정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와 기업, 사회복지기관이 함께 모인 뜻 있는 자리였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및 (주)LIG 이효구 대표, 김성은 홍보대사 등 미혼모자가정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회는 앞으로 미혼모자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일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다.

홀트대바자회 성공리에 열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진행된 '저소득가정지원을 위한 나눔바자'가 4월 26일 본부에서 개최, 많은 후원자와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1억 1천만 원이 모금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연합 워크숍 열려



우리회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강원 춘천, 서울 마포, 대구 수성)와 건강가정지원센터(서울 마포, 경기 하남, 대구 수성) 6개 단위가 모여 3월 14일 ~ 15일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강촌 엘리스안 리조트에서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합 워크숍을 열었다.

● 지방사무소 ●

경남사무소, 홍보캠페인 펼쳐



창원시 마산공설운동장에서 5월 5일 열린 제36회 MBC경남 어린이콘서트에 홍보부스를 마련, 지역주민들에게 기관 소개와 복지서비스 및 후원 안내를 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부산사무소, 국군부산병원 후원금 전달

4월 30일 국군부산병원에서 방문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보호 중인 위탁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양육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일산경찰서와 MOU 체결



홀트일산복지타운은 일산경찰서(서장 정수상)와 5월 14일 MOU를 체결다. 이번 MOU를 통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생활자들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 홀트학교 ●



2013 사랑과 나눔의 한마당 축제가 5월 8일 열

렸다. 고양시 자원봉사단체 '다문화(회장 이수영)와 함께 학생들의 장애극복의지를 격려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3년째 열린 행사로 새로운 체험과 홀트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발표회 등 장애를 뛰어 넘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엿본 시간이었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3 꽃보다 아름다운 행복드림'



장애인의 날과 고양 600주년을 기념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청과 함께 '2013 꽃보다 아름다운 행복드림'을 4월 16일 개최했다. 지역주민 약 350여 명을 초청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잔치상, 제8회 전국장애인문학제 시상식, 행복드림콘서트, 장애인 작은 채용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고양 600주년 사진전과 장애인문학제 수상작 시화전도 열렸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13년 홀트경로잔치 성황리 개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5월 9일 지역 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홀트경로잔치를 개최했다. 300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공연에 관람하며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아이봉사단 800회 무료검진 실시

5월 11일 부산대학교 아이봉사단은 '사랑을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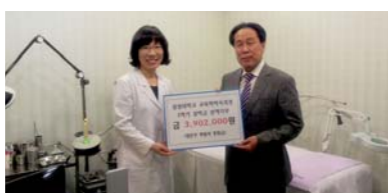
으로'라는 슬로건으로 800회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1993년부터 20년 동안 매주 토요일 반송내 저소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800회를 맞이했다. 아이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사랑 나눔 바자회' 실시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를 4월 26일 복지관 중앙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로전택배, 푸레주르 풍삼점, ㈜다솔, J&K 외 다수의 물품 후원과 'MOOK 봄맞이 초대전'을 함께 실시, 풍성한 나눔바자회가 되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임은주 후원자 장학금 후원



임은주 후원자가 3월 5일 경성대학교 교육학 박사과정 중 받은 3학기 장학금 전액(3,902,000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나눔을 생활 속에 실천해 주신 임은주 후원자에게 감사드린다.

● 미혼모자시설 ●

사랑들,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협약

사랑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터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CYS-NET사업에 근거, 달서구지역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구조·치료를 목적으로 상호 협약식을 가졌다. 앞으로 입소생들의 정서적인 건강과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아름들, 자립교육 네일아트 교육 실시



아름들에서는 입소생들에게 자립교육의 일환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총 16회기에 걸쳐 네일아트 교육을 진행, 5월 열린 네일아트 2급 자격시험에 4명의 모든 응시생들이 합격했다.

아침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찻집'



4월 11일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cafe 수다떠는 도서관에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찻집'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아침들 개원 8주년을 맞이하여 미혼모자의 자립자금 마련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재고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박용갑 중구청장과 지역 주요 내빈 100여 분이 참석해 모금과 격려의 자리가 되었다.

대전클로버, 돌잔치에 '온 동네가 뭉쳤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대전클로버 한 아기의 돌잔치를 위해 지역민이 나섰다. 3월 5일 곳곳의 도움으로 미혼모자 가정 아동 돌잔치가 풍성하게 개최되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후디스맘 아카데미

일동후디스맘과 연계하여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3월 12일 '후디스맘 아카데미'를 열어 육아가이드-한방으로 풀어보는 육아상식과 국악태교가 진행되었다.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4주년 기념행사 '사(4)랑나눔 캠페인'

개소 4주년을 맞이하여 지역가족과 함께 의미를 나누고 뜻을 함께하는 기회를 갖고자 '사랑하는 인종상 사진 공모전과 전시회, 홈플러스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의 달 행사 개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1일 지역 국회의원과 유관기관들이 함께한 가운데 가정의 달 행사를 열어 다양한 체험부스운영과 활동으로 가족들이 마음껏 즐기는 자리가 되었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무료 치과진료

마포구 치과의사회 후원으로 다양한 지역내 신연세치과, 서울e편한치과, 마포예치과에서 저소득 다문화가정자녀를 대상으로 치과치료를 제공했다.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교육후원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후원

으로 저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교육후원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합창제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다문화 가족 사랑 합창제가 5월 20일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착지원우수단체로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받았다.

홀트심리상담센터, 유관기관 업무협약식

홀트심리상담센터는 대구광역시 서구드림스타트센터(서구청장 강성호), 달서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이미영), 달성군 다문화지원센터(센터장 성계화)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 지원을 협력하고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전주영아원 ●

소셜안전보호사 직원교육

응급조치교육으로 종사자들이 응급상황대처 능력을 향상, 시설아동들의 안전과 건전육성 환경을 위해 4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40시간의 교육을 실시했다.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연합 수련회

5월 10일, 11일 양일간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어린이집 연합수련회가 에버랜드 캐빈호텔에서 열렸다. 김대열 회장의 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참석자들은 "홀트인



으로서 소속감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 전국후원회 ●

강원후원회,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후원모금



강원후원회(회장 신명숙)는 최반국민 캄보디아 내 프놈펜 지역에 위치한 홀트드림센터 아동들의 교육 및 영양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위해 동진지갑을 제작했으며 11월 캄보디아를 방문시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후원회, 자연사랑, 푸른환경 캠페인 지원



광주후원회(회장 전향자)는 5월 16일 푸른환경 캠페인을 중심사 인구 천변과 주차장, 쉼터 주변에서 전향자 회장을 비롯하여 1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따르릉~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전화입니다

1899-0923

지역마다 달랐던 후원번호,
복잡하게 느끼셨다면
이제 '1899-0923'만 기억해주세요!
후원이 생각날 때 '1899-0923'



퀴즈>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전화는 ○○○○-○○○○

정답을 아시는 분은 pr@holt.or.kr로 성함,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시면 10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후원사업이 궁금하세요? ▶ 스마트폰으로도 후원 가능한 거 아시죠?



- 국내후원사업** 요보호아동보호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가정아동 후원 및 장학사업, 장애인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지원
- 해외사업** 캄보디아 이주민 정착촌 아이들과 주민을 위한 교육과 보건, 의료지원
- 후원방법** 정기후원, 일시후원, 기업후원, 결연후원
- 후원참여** www.holt.or.kr · 1899-0923 · ARS 060-700-1006

"보내주신 물품 잘 받았습니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
박스가 너무 커서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해 껌바로 꺼내보았습니니다.
가져다랑 분류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생우유로는 영양이 부족해 늘 걱정이었는데 분류로 영양 보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기용품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한동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기도 좋아하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보내주신 키트물품 감사히 잘 받았습니니다.
건강히 먹고 깨끗이 잘 쓰겠습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저도 꼭 후원할게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365 BABY CARE KITS와 함께 미혼모자가정을 응원합니다



해피빈 365 BABY CARE KITS

- 365 BABY CARE KITS 의미 - 365일 미혼모자가정 아동을 건강하게 보호하자는 의미로 1달여 분의 양육물품을 생활고를 겪는 미혼모자가정에 지원하여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하는 응원캠페인입니다.
- 365 BABY CARE KITS 후원 - 정기후원 1899-0923 / 네이버 해피빈 ▶ 365 BABY CARE KITS
- ※ 365 BABY CARE KITS는 여성가족부, (주)LIG와 함께합니다.



LIG가 희망찬 내일을 연주합니다

금융에서 첨단산업, 서비스까지
희망을 연주하는 LIG그룹

LEADING for TOMORROW 금융계열사 LIG손해보험, LIG투자증권, LIG투자자문, LIG자동차손해사정
 INNOVATION for TOMORROW 방산 · 첨단기술계열사 LIG빅스원, LIG에이다피
 GROWTH for TOMORROW 엔지니어링계열사 LIG엔설팅
 PARTNER for TOMORROW 서비스 · IT계열사 (주)LIG, LIG시스템, 휴세코, 엘샴, 투모로플러스

